

중장기 계획 아래 현대적 세련미 추구, 캠퍼스건축 다양성 이뤄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 12

캠퍼스의 확장 및 건축의 현대화: 1980~90년대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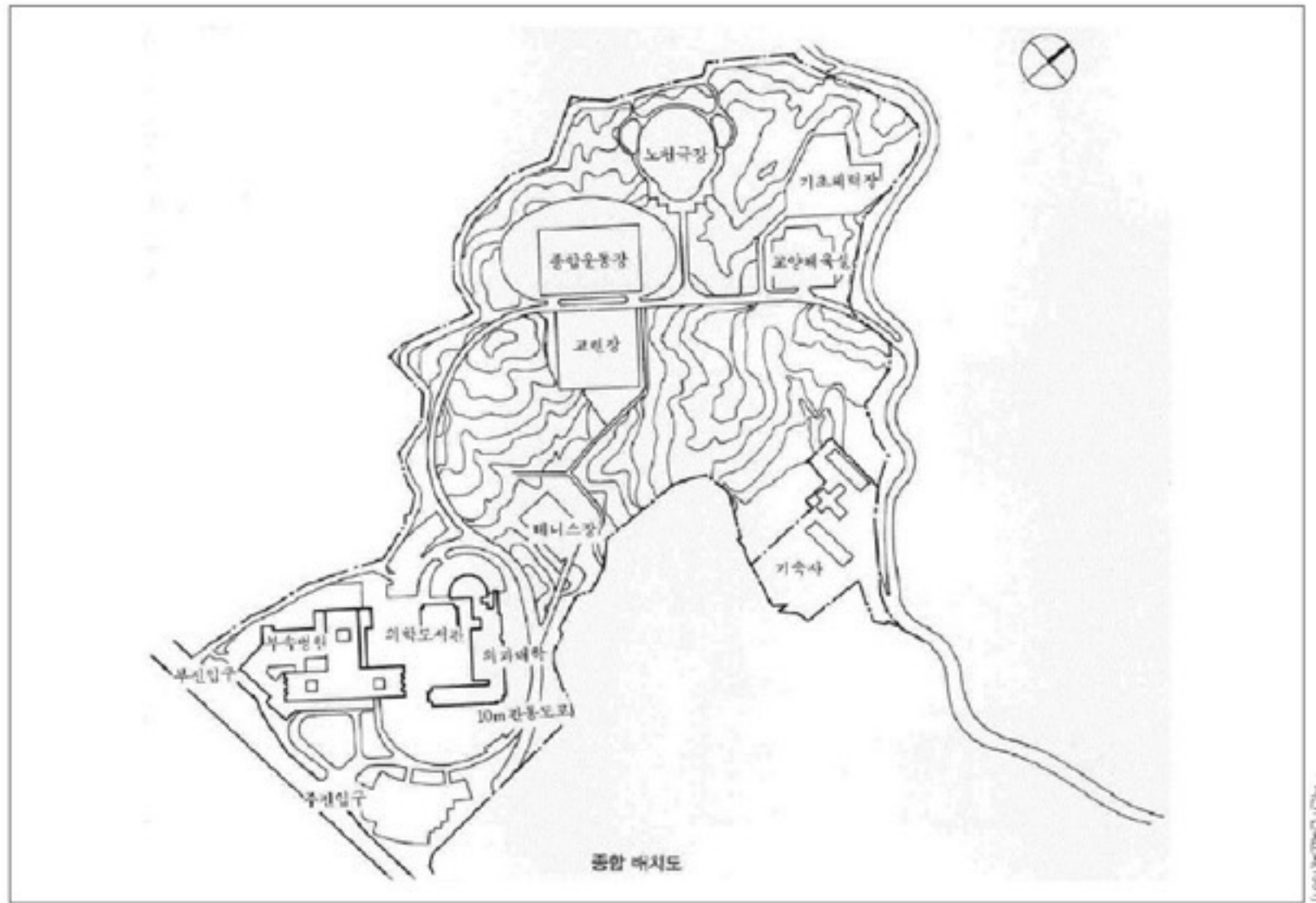
지난 호에서 서술했듯 이정덕 교수가 디자인한 학생회관(1970~71)과 상과대학(1970~72)은 석조고딕 캠퍼스에 모더니즘 건축물이 들어서는 방식을 대조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건축사의 큰 그림 속에서 이런 시도가 아주 일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두 경우 모두의 바탕에는 궁극적으로 '현대화'의 조건에 대한 고려가 내재했다고 하겠다. 이에 곧이온 건물들, 예컨대 중앙도서관(1974~77), 과학도서관(1982~83), 법학관(1983~84), 정경관(1983~84) 등 역시 유사하거나 조금씩 변형된 양태로 그 같은 현실적 조건을 수용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중앙도서관 신관은 이정덕의 계획을, 나머지 세 건물은 1966년 건축과에 두 번째로 부임한 박운성 교수(1927~2013)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건축됐다.) 그리고 '민주화'라는 또 다른 현실 속에서도 건축은 계속됐다. 위 건물들과의 연장선상에서 1980년대와 90년대의 고려대학교 건축은 '캠퍼스의 확장' 및 '건축의 현대화'라는 프레임으로 포착할 수 있다. 이번 호엔 그 흐름을 간략히 개괄하자.

서창캠퍼스와 녹지캠퍼스 개발

고려대학교는 1930년대 안암동에 자리 잡은 후, 조직과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1980년에 설립된 단계적으로 모습을 갖추어 나간 조치원의 서창캠퍼스(현 세종캠퍼스)는 당대 고려대학교의 외적 확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이다. 서울의 안암동을 중심으로 본다면 1980년대 후반부터 자연계 뒷산에 개발한 녹지캠퍼스가 학교의 팽창하는 규모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녹지캠퍼스 개발은 1960년대 말 처음 구상됐고 1986년의 '녹지캠퍼스 조성계획' 발표와 더불어 시작된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기본설계는 당시 한국 건축계의 원로였던 이천승 선생(1910~92)이 담당했다. (이천승은 건축설계와 도시계획 모두에서 폭넓게 활약했던 인물로, 1957년에는 한국건축작가협회(현 한국건축가협회) 창립 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종합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을 조성함과 동시에 1971년 우석대학교로부터 병합했던 명륜동의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안암동으로 이주시키기 위함이었다. 또한 고려대학교에 부재했던 예술대학도 장차 여기에 수용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 영역은 본관 뒤편의 산자락에 세워졌던 기숙사까지를 아우르며 인문사회계와 자연계를 빙 둘러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된다.

한편, 1987년 착수했던 고려대학교 장기종합발전계획안이 이듬해 7월 발표됐다(『高大新聞』, 1988.7.25). 이것은 교육의 내실화와 연구의 활성화, 대학 및 학과의 신설, 대학원의 발전, 의료원의 발전, 시설확충 계획, 직제조정 등을 골자로 하며, 개교 100주년이 되는 2005년을 타깃으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수립한 것이다. 그 중 시설의 확충이 가장 가시적임은 자명한데, 발표 당시 이미 경영관 신관, 사범대 신관 증축, 의과대학, 인촌기념관, 기숙사 신증축 등의 항목이 진행 중에 있었다. 이 계획안은 학생들의 자치공간 문제나 서창캠퍼스와의 이해상충 문제, 계획안의 온전한 실행 여부에 대한 문제 등을 수반하기도 했다. 그러나 캠퍼스의 중장기 시설확충을



1971년 우석대 병합으로 모교는 의과대학을 갖게 돼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이에 걸맞게 모교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의 안암동 이전을 추진하면서 녹지캠퍼스 조성을 기획했다. 1991년 안암병원 준공 당시의 녹지캠퍼스 배치도.

훨씬 구체적인 밑그림 위에 진행했다는 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현대 감각으로 진일보한 건축 표현

이 시기 고려대학교 건축의 특징은 보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캠퍼스를 단장했다는 데 있다. 기존의 가장관을 병합하며 건축된 사범대학 신관(1987~88)의 외적 이미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비록 외벽의 표현과 내적 구조의 논리가 불일치하지만) 모더니즘 건축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었고, 인촌기념관(1989~91)에서 보듯 고딕석탑의 전례를 따르는 건물도 여전히 지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의 건축은 대체로 고려대학교의 과학화와 세계화라는 화두에 발맞춘 것으로서, 근대주의 건축의 절제된 단순미로부터 탈피해 더 세련된 모습을 띠게 된다. 이런 변화는 외벽의 마감에서 제일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 있다. 교양관이나 홍보관과 같은 1960년대 모더니즘 건물의 벽면이 시멘트 모르타르의 평활한 마감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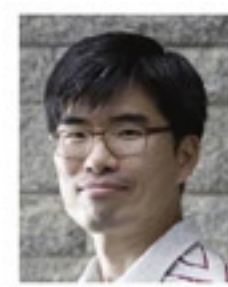
1930년대 이후 모교는 교육시설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1980년 설립된 조치원캠퍼스(현 세종캠퍼스)는 모교의 외적 확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진은 1980년대 초반 조치원캠퍼스 종합계획.

에 페인트로 도장된 반면, 이 시기의 건축물들은 외벽을 타일로 마감하거나 건식구법을 이용해 화강석 판재 등으로 치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산학관(1994~96)과 이학관(1994~96)에서처럼 벽면의 상당 부분을 유리 커튼월(Curtain wall)로 마무리함으로써 현대적 미감을 추구하기도 했다. 설령 타일이나 기타 외장재를 쓰지 않는 경우라도 기초과학센터(1992~93)와 안암병원(1987~91)에서 보듯 외벽을 거친 질감의 착색 드라이비트(Dry-vit)로 처리해 이전의 매끈한 벽면에서와는 다른 건축적 입장을 선보였다. 비록 이때의 고려대학교 건물들에 현대건축의 선구적 실험이 적용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들은 분명 시대의 흐름을 온건하게나마 반영했다고 하겠다. 아카데미아의 보수성이나 고려대학교의 독특한 캠퍼스 경관을 생각할 때, 그리고 모교에 근간한 예산의 제약 및 이정덕의

마스터플랜 설계원칙을 고려할 때(본보 2015년 3월호, 연재물 10회분 참조), 급진적 건축물의 부재는 오히려 자연스런 귀결로 보인다.

1980년대 후반을 녹지캠퍼스 개발의 시작으로 특징짓는다면, 1990년대는 자연계캠퍼스의 산학연 종합연구단지인 테크노콤플렉스 조성(1994~96)이 큰 화두였다. 그 밖에도 석조고딕 모티브를 이어받은 인촌기념관, 한옥양식을 차용한 한국학관(1997~99), 현대적 세련미를 갖는 국제관(1997~99) 등의 건립은 고려대학교 캠퍼스 건축의 다양화를 보여주는 주요 예로 거론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후의 지면을 통해 살펴보자.



김현섭(건축공92) 모교 건축학과 교수



1996년 완공된 산학관(왼쪽)은 벽면 부분을 유리 커튼월로 마무리해 현대적 미감을 구현했다. 오른쪽은 1999년 서관과 정경관 사이에 건립된 국제관. 90년대 이후 건립된 건축물들은 현대적 세련미로 모교 캠퍼스건축에 다양성을 부여했다.